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2호 [루계 제2151호]

주체 100  
(2011). 12

24

토요일

음력 11. 30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생할것이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어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즐기치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가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정치의 대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 최대의 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흑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정치로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할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어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이 높이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 곁쌍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련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것처럼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즐기치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며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조성된 정세는 준엄하지만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 비분에 떠는 삼천리강토, 하늘땅에 차넘치는 민족의 대슬픔

## 각 계 층 인 민 들 가 장 비 통 하 게 애 도



### 그이는 가시지 않으셨다

박 철

어찌 믿을수 있으랴  
눈물에 젖은 방송원의 저 말을  
우리 장군님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그 비보를

아니다 아니다  
왈칵 비통한 눈물은 비오듯  
쏟아져도  
심장은 굳이 부정하거나  
하늘이 무너져내렸다는 그  
말도  
내 믿을수 있겠지만  
이 비보만은 아니다

어떻게 믿을수 있으랴  
그제만도 함남도내 공장들을  
돌아보고  
어제만도 평양의 하나음악  
정보센터와  
광복지구산업중심을 찾으시어  
기쁨에 환하게 피어올리시던  
미소  
그 뜨거운 심장이 고동 멈추  
었다고

이 시각도 이 순간도 귀기울  
이면  
저 철길 한끝에서  
장군님 라신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군님  
발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것만  
같은데...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슬픔에 주저앉았던 우리 인민  
에게  
자신의 숨결과 심장을 다  
주어  
두번다시 살아나게 하여주신  
삶의 은인 삶의 아버지이신  
그이

첩첩 험로역경 환몽으로 헤쳐  
사회주의조국 지켜내시고  
한몸 불태워 북남삼천리에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신  
선군령장, 통일의 구성이신  
그이

말해보자, 이 나라의 하늘과  
땅이며  
그 은혜로운 아버지가  
어이 정깊은 인민과 헤어지  
실수 있단 말인가  
그 위대한 령장이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시던 이  
조선을 두고  
어이 가실수 있단 말인가

우려러 우려러  
만면에 미소 환하게 지으신 영상  
한평생 인민을 찾으시며 입으

### 영원히 장군님과 함께

리 송 일

땅을 치고 가슴 허비며  
피눈물을 쏟고쉴는 인민이여  
누가 그러던가  
아버이장군님  
우리결을 떠나셨다고

저 하늘의 태양도 떨어진다  
더냐  
이 땅, 삼천리하늘에 빛을  
주시던  
우리 장군님은 태양이신데  
그이가 우리결을 떠나시다니

안될 말이다  
머리 들어 하늘을 보라  
삼천리의 우리 하늘  
누가 지켜주었더냐  
오늘도 그이를 믿어  
저 하늘은 저리도 맑고 푸  
른데

셨던  
그 야전복 그대로 입으  
시고  
태양처럼 빛나시는 장군님  
영상이여

우리 인민 우리 겨레는  
장군님의 그 영상 천세만세  
모시고  
그이의 뜻 받들어가리라  
김정은동지의 손길따라  
인민은 강성대국의 대문 활짝  
열고  
겨레는 통일의 새 아침 펼치  
리라

오, 가시지 않으셨다 그이는!  
하늘이 낸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 하늘의 태양으로 길이  
빛나시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이 자욱자욱으로 약동하는  
이 땅  
여기서는 지금도 지금도  
주체철쇠물이 펄펄 끓고  
비료폭포, 비날론폭포가 쏟아  
지는데

아니다, 아니다  
인민이여, 겨레여  
땅위에 어둠이 깃들었다고  
태양이 영영 진것 아니나니  
김정일장군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 삼천리하늘에  
태양은 영원히 솟아있으리  
우리 장군님 다져주신  
사회주의러전에 행복은 무르  
익고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6.15

우에  
통일조국이 우뚝 솟으리라

아, 인민을 위한 겨레를 위한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  
그 성스러운 생애엔  
시작만 있고 끝은 없거니

### 가리라 세월의 한끝까지

김 태 룡

가슴을 치며 터뜨리는  
이 눈물 피로 쏟은들  
쓰리고쓰린 슬픔이 가셔질수  
있으랴  
숨막히는 통분함 누를수  
있으랴  
아, 장군님 장군님  
우리결을 떠나시다니

이제는 비울수 없는 아버지  
비울수 없으니 더더욱 그리운  
아버이  
절통하다 비통하다  
민지 말아야 할 뼈저린 아픔  
의 소식을  
굳이 믿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잃었는가  
얼마나 커다란 상실의 고통이  
우리의 가슴 갈가리 찢는가  
그 고통 안고 일어서기엔  
비에의 하늘이여  
너는 너무도 무거운것이구나

한생의 단 하루도 내리신적  
없고  
언제 한번 종착역이란 있어  
본적 없는  
장군님의 야전렬차  
아, 그 야전렬차가 달린 그  
길이  
다시는 다시는 오시지 못하는  
길이었던 말인가

맞으신 이 해의 첫눈이

그이 위업은 세 세 년 년  
빛나리  
하늘의 태양이 불멸하듯  
불멸할 은혜로운 빛발아래  
우리 겨레 무궁세월 살아가  
리라  
영원히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한생의 눈과 비가 다 젖어  
있는 야전복  
그 야전복을 입고 순직하신  
장군님  
끝내내 우리 쏟아지는 피눈  
물로  
그 야전복을 적셔야 하는가

모진 심혈과 로고를 다 쥐으  
시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참고  
이겨내시며  
오로지 강성대국의 그날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내대신  
김정일장군님

얼마나 얼마나 좋았으랴  
강성대국의 그 찬란한 세월의  
하루만이라도  
그이 기쁨속에 계시었다면  
그처럼 바라신 조국통일의  
아침도

### 천 만 심 장

청천벽력  
너무도 억이 막히는 이 비  
보  
정녕 믿어야 하는가  
장군님께서 가셨다는 이 말  
우리의 장군님께서 가셨  
다는...

이 나라 방방곡곡 어디에  
가보아도

그이 환한 미소를 짓고 맞으  
시었다면

굳이 믿어야 한다면  
장군님 떠나가셨다는 비보를  
믿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세월속에  
장군님 영생하신다는 그 진리  
만 믿으리

그 진리속에 높뛰는  
장군님의 숨결 심장의 박동  
그 숨결 그 박동을 안고  
신념의 격랑이여  
슬픔의 바다위에 거세게 솟구  
치라

피눈물에 잠겨들수 없는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  
그 뜻과 념원 안으신  
조국아, 우리에게겐 위대한  
계승자  
김정은대장동지가 계신다

굳 세 계 가 리 라  
김정은대장동지를 따라  
장군님 리상하신 강성대국  
에로  
장군님 바라신 조국통일로  
오,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  
시고  
세월의 한끝까지 우리는 가  
리라

### 다 바 쳐

리 철 준  
손꼽아 그이만을 기다리는  
인민이 있는데  
오직 기쁨만을 드릴 일념에  
삶을 불태우는 인민이 있는데  
영영 가시었다니 오실수 없다니  
렬차에서 지금 쉬고계시리  
인민을 찾아 떠난 그 길에서  
잠시 눈을 붙이시리  
죽잡이 제일가는 단잠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이 아닌신가

아, 가슴치누나  
인민이 혁명일화로 가슴에  
새긴  
그 죽잡때문에  
그 꿰기때문에  
장군님 가신것 아닌가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예석  
하게

인민이 발편자에 들 때  
길가에서 쪽잡에 드시고  
인민이 밥상을 마주할 때  
꿰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던  
불같은 초창도의 그 낮과 밤  
빨치산식강행군의 날과 달

그런 날 그런 헌신으로  
인민이 기쁨속에 누리는  
선군의 만복 꽃피우시고  
겨레가 환희속에 맞이한  
6.15의 벅찬 통일시대도  
장쾌하게 열어주지 않으셨  
던가

그 심혈 그 로고를 생각하며  
심장이 뿜어내는 피의 웨침  
우리 장군님 천만교생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한 심장  
천이면 될 하라  
만이면 될 하라

아, 아버지장군님께  
우리 못다 바친 그 충정  
조국과 민족의 진두에 높이  
서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 바치고 또 바치려니

가슴터지는 슬픔과 비분우에  
솟구치는 피눈물의 맹세  
천만심장 하나되어  
장군님유혼 끝까지 지키리라  
선군조선의 희망이고 미래  
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하늘처럼  
받들리라!



